

일본차의 역사

꼭다문화는 고대 중국에서 기원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618-907)과 송(960-1279)시대를 거치며 크게 발전하였고, 한국과 일본으로도 전해져 오늘날 세련된 차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가 처음 일본에 전래된 것은 나라시대(710-793)입니다. 그리고 말차를 마시는 풍습이 널리 보급된 것은 선종을 일본에 전한 에이사이 선사(1141-1215)가 1191년 차씨와 함께 차 재배법을 송나라에서 들여온 뒤부터입니다.

중국에서는 말차를 마시는 문화가 차츰 사라지고 그 자리를 녹차가 대신한 반면, 일본에서는 선종의 발달과 함께 다인 센노리큐(千利休、1522-1591)가 대성시킨 와비차를 통하여 말차가 일본 다도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일본에서 녹차를 마시는 풍습이 소개된 것은 17세기 중엽 우지(宇治)에 만복사 사찰을 세운 중국인 선승이었습니다. 이때 전해진 녹차문화는 명나라 풍을 기초로 만들어진 잎차 다도로, 일본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일본의 독자적인 차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꼭다양생기』 에이사이(榮西) 저서

일본차의 종류

차는 완전발효차인 홍차, 반발효차인 우롱차, 비발효차인 녹차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차는 녹차입니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을 함유한 찻잎의 녹색을 신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하나는 중국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햇빛에 노출시켜 찻잎을 성장시키는 제법입니다. 일본 잎차의 대부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차나무의 새순을 햇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재배법은 일본에서 맛있는 '말차'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고 점차 일본의 고급녹차로 알려진 '옥로'를 만드는 재배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녹차 다원의 체다 풍경



말차 다원의 체다 모습

말차의 효용

찻잎에서 건강에 유익한 효능을 얻으려면 찻잎을 온전히 마시는 말차가 가장 좋습니다. 찻잎 속의 몇 가지 성분은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으로 몸에 좋은 카테킨은 겨우 3분의 1만이 물에 녹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차가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병을 예방해 주는 선약일 뿐 아니라, 병을 치료해주는 신비한 영약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과 고혈압을 억제하는 효능이 널리 알려졌으며 노화를 방지하고 당뇨병과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거품을 낸 말차



본사

宇治茶販売製造
株式会社丸久小山園
〒611-0042 京都府宇治市小倉町寺内 86 番地
www.marukyu-koyamaen.co.jp



마키시마(槇島) 공장